

월간 SW 산업 동향

2013. 1월호



• Package Software • IT Service • Embedded Software • Open Source Software

I . Summary	1
II. 월간통계	4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5
2. SW산업 관련 통계	7
III. 국내외 정책 동향	12
1. 국내	13
2. 해외	19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21
1. 부문별 시장 동향	22
2. SW 기업동향	33
V. 주요 리포트	40
1. 2013년 국내외 10대 트렌드	41
2. Virtual Goods, 스마트혁명이 낳은 신성장동력	47
VI. 월간 SW 이슈 분석	53
1. NFC의 장단점 및 기회	54
2. UX 전문가의 부상	58

I . Summary



◆ 월간 통계

- 2012년 12월 SW 생산액은 4조 529억 원, 수출액은 3억 1,873만 달러
- (포레스터리시치) 국내 IT시장은 지난해보다 4% 성장한 3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 (KRG)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성장률인 3.1%와 비슷한 수준
- (IDC) 2013년 국내 DBMS 시장 전년 대비 7.5% 성장, 5천 200억 원 규모 전망
- (IDC) 2013년 국내 스토리지SW 시장 1,599억 원 규모로 전망
- (가트너) IT성장의 걸림돌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년보다 IT 지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SW산업 국내외 정책

- (지식경제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하나로 추진된 SW 자산거래소 'SW 뱅크' 1월말 오픈, 2013년 산하기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개 SW를 도입하기로 결정, 대기업 참여가능 공공정보화 사업, 2개추가 4000억 규모로 확대, 국산 상용SW의 공개SW 전환 유도 정책 강화, SW분리발주 제외적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분리 발주 대상 SW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체계 도입 추진,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 실시, '13년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12년도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무선랜(와이파이) 보안 수준 진일보, 2월 18일부터 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 시행
- (미국) 미 특허청, 의견 수렴을 거쳐 SW특허 개선작업 착수,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범죄 예방차원 '자바' 사용중단 권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개정안을 발표
- (EU) 2013-2014년 디지털 어젠다 7대 우선 전략 발표, 사이버범죄센터 (EC3) 공식 출범

◆ SW 시장 및 기술 동향

- (패키지SW) SW업계,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책 사업을 본격화, 보안업계, 주요 정보보안 기업의 2013년 총 매출목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2013년 국내 방화벽 시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
- (IT서비스) IT서비스기업, 신사업을 2013년 핵심 사업으로 확대, 중견 IT서비스 업체, 금융IT 시장 공략에 나섬, IT서비스 업체, OEM 기반 신사업 창출 총력, IT서비스업계, 공공시장 공략 전열 정비
- (신사업) IT서비스기업, 2013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활발, BYOD 흐름에 모바일 DRM 수요 증대 예상되면서 DRM 업계 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SNS에서 유통된 불법정보에 대해 4천454건으로 파악, 인터넷 포털업계,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치열

◆ 주요 리포트

- 「2013년 국내외 10대 트렌드」, 삼성경제연구소(‘13. 1)
 - ‘저성장’과 ‘신정부’하에서 ‘패러다임 전환 압력’이 고조되는 한 해, 2013년 해외 트렌드의 키워드는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
- 「Virtual Goods, 스마트혁명이 낳은 신성장동력」, KT경제경영연구소(‘13. 1)
 -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가상재화 (Virtual Goods market)이 창출되고 있음

◆ 월간 SW 이슈 분석

< NFC의 장단점 및 기회 >

- NFC(Near Field Communication)가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어 NFC가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

< UX 전문가의 부상 >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자들과 사용자 경험(UX) 전문가들이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음

II. 월간통계



1. SW산업 생산액 및 수출액

가. SW 생산액 분석

- 2012년 12월 SW 생산액은 4조 529억 원,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
 - 2012년 연간 SW 생산액은 31조 1,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
 -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및 IT 융합 사업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SNS 등 신사업 추진 등으로 생산액 증가
 - 12월 패키지 SW 생산액은 4,98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1% 증가
 - 연간 패키지 SW 생산액은 4조 1,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
 - 정보보안, 모바일 등 특화 솔루션의 및 통합·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높은 성장세 유지
 - 12월 IT서비스 생산액은 3조 5,54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
 - 연간 IT서비스 생산액은 26조 9,902억 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 기업들의 IT서비스 프로젝트 축소 및 연기, SI시장 축소 등으로 인해 성장세는 약화되었으나, 클라우드, 빅데이터, 융복합 등 사업 영역 다각화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노력

월별 SW 생산액 추이(단위: 억 원)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합계
패키지 SW	2012년	3,003	3,273	3,853	3,151	3,325	3,757	3,262	3,122	3,263	3,290	3,359	4,984	41,642
	2011년	2,668	2,769	3,163	2,915	2,851	3,211	3,147	2,964	3,109	2,979	3,158	4,528	37,463
	증감	12.5%	18.2%	21.8%	8.1%	16.6%	17.0%	3.6%	5.3%	4.9%	10.4%	6.3%	10.1%	11.2%
IT 서비스	2012년	18,660	19,104	20,621	19,999	20,998	24,138	22,042	21,089	23,337	21,298	23,070	35,545	269,902
	2011년	17,334	17,949	20,789	19,022	20,675	21,911	19,961	19,785	21,978	20,365	22,546	31,770	254,086
	증감	7.6%	6.4%	-0.8%	5.1%	1.5%	10.2%	10.4%	6.6%	6.2%	4.6%	2.3%	11.9%	6.2%
합계	2012년	21,663	22,378	24,474	23,150	24,323	27,896	25,303	24,210	26,601	24,588	26,428	40,529	311,545
	2011년	20,002	20,718	23,952	21,938	23,526	25,122	23,109	22,750	25,087	23,345	25,704	36,298	291,549
	증감	8.3%	8.0%	2.2%	5.5%	3.3%	11.0%	9.5%	6.4%	6.0%	5.3%	2.8%	11.7%	6.9%

※ 생산액 수치는 잠정치

자료: KEA(2013. 1)

나. SW 수출액 분석

- 2012년 12월 SW 수출액은 3억 1,87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0% 증가
 - 2012년 연간 SW 수출액은 22억 4,141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2% 증가
 -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 노력과 함께 보안, 의료 SW 등의 특화 솔루션 및 전자정부 수출 강세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 기록
 - 12월 패키지 SW 수출액은 1억 2,24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9% 증가
 - 연간 패키지 SW 수출액은 8억 1,5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3% 성장
 - 보안 SW 등 특화 솔루션 강세와 주요 기업들의 해외 개발센터 사업 강화 등으로 패키지 SW 수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12월 IT서비스 수출액은 1억 9,633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3% 증가
 - 연간 IT서비스 수출액은 14억 2,554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1% 성장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 및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 신사업 및 맞춤형 솔루션의 해외 시장 공략으로 높은 성장세 유지

월별 SW 수출액 추이(단위: 천 달러)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합계
패키지 SW	2012년	20,220	21,817	25,824	26,505	45,568	66,174	75,704	84,032	95,119	111,481	121,016	122,405	815,865
	2011년	21,268	19,118	28,813	20,614	22,535	34,716	25,842	25,524	30,464	27,346	33,763	39,878	329,881
	증감	-4.9%	14.1%	-10.4%	28.6%	102.2%	90.6%	192.9%	229.2%	212.2%	307.7%	258.4%	206.9%	147.3%
IT 서비스	2012년	77,183	79,643	96,418	121,334	151,916	118,413	98,039	114,965	119,912	104,466	146,920	196,332	1,425,541
	2011년	73,115	72,381	91,267	88,603	85,983	84,449	80,921	92,827	91,523	100,338	100,772	133,327	1,095,506
	증감	5.6%	10.0%	5.6%	36.9%	76.7%	40.2%	21.2%	23.8%	31.0%	4.1%	45.8%	47.3%	30.1%
합계	2012년	97,403	101,460	122,242	147,839	197,484	184,587	173,743	198,997	215,031	215,947	267,936	318,737	2,241,406
	2011년	94,383	91,499	120,080	109,217	108,518	119,165	106,763	118,351	121,987	127,684	134,535	173,205	1,425,387
	증감	3.2%	10.9%	1.8%	35.4%	82.0%	54.9%	62.7%	68.1%	76.3%	69.1%	99.2%	84.0%	57.2%

※ 수출액 수치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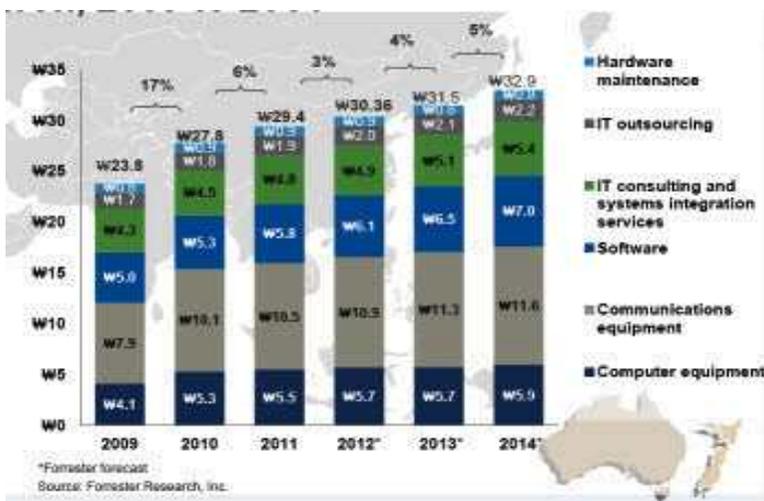
자료: KEA(2013. 1)

2. SW산업 관련 통계

가. 국내 SW 시장 전망

- 2013년 국내 SW 시장 전년 대비 6.6% 성장, 6조 5000억원 규모 전망
 - (포레스터리서치) 국내 IT시장은 지난해보다 4% 성장한 31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 SW시장은 IT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폭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HW 유지보수, 컴퓨터 장비 분야는 제자리를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세계 IT시장은 지난해보다 3.3% 성장한 2235조원 규모로, 한국 시장보다 성장 폭이 낮을 전망
 - 한국 IT시장은 SW시장 성장세가 빠른 게 큰 특징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분야별로는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컴퓨팅, 모빌리티, IT 소비자화 (consumerization) 부문 성장이 기대

국내 IT 시장 전망 2009~2014



자료: 포레스터리서치 (2013. 1. 25)

나. 국내 IT서비스 시장 전망

- 2013년 국내 IT서비스 시장 10조 9천 990억 원 규모 전망
 - (KRG) 전년 대비 3.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 성장률인 3.1%와 비슷한 수준
 - 2013년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에 대한 투자로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장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정부의 IT정책과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금지,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신성장 사업 확보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와 제조, 공공 시장은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금융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역성장 할 것으로 예상

2013년 전체 IT시장 전망 (단위: 10억 원)



자료: KRG (2013. 1. 11)

다. 국내 DBMS 시장 전망

- 2013년 국내 DBMS 시장 전년 대비 7.5% 성장, 5천 200억 원 규모 전망
 - (IDC) 수출 품목 및 수출 시장 다변화로 역대 최대 성장
 - 2016년까지는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6천458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OLTP) 업무 외에도 BI 구현과 DW 고도화를 위한 DBMS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원백(다른 회사 제품으로 교체) 활동과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지속
 -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기업 인텔리전스 구현, 업무 특성별로 적용되는 DB 종류의 다양화, 그리고 인메모리와 같은 신규 DB 관리 기술들이 시장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인들이 되고 있음

국내 DBMS시장 전망 (단위: 백만 원)



자료: IDC (2013. 1. 17)

라. 국내 스토리지SW 시장 전망

□ 2013년 국내 스토리지SW 시장 1,599억 원 규모로 전망

- (IDC) 핵심 IT자산 중 하나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백업·복구 솔루션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스토리지 관련 SW 시장도 성장
 - 백업·복구, 용량관리, 가상화, 자동계층화 솔루션 등과 같은 스토리지 SW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
 - 클라우드와 가상화, 모바일 환경 구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백업 복구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국내 스토리지SW시장 규모 (단위 : 억 원)



자료: IDC (2013. 1. 24)

마. 세계 IT지출 규모 전망

- 2013년 세계 IT 지출 규모 전년 대비 4.2% 증가한 3조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가트너) IT성장의 걸림돌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전년보다 IT 지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 엔터프라이즈 SW 지출은 보안과 스토리지 관리, CRM 등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총 2960억달러에 이르며 전년대비 6.4% 성장 전망
 - PC와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프린터 등 기기 지출은 6660억 달러 규모에 이르러 작년보다 6.3% 상승할 것으로 전망
 - 2016년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스마트패드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PC와 스마트패드를 비롯한 같은 전체 기기 지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전세계 IT지출 전망 (단위 : 10억 달러)

	2012년도 지출	2012년도 성장률	2013년도 지출	2013년도 성장률	2014년도 지출	2014년도 성장률
기기(Devices)	627	2.9%	666	6.3%	694	4.2%
데이터센터 시스템 (Data Center Systems)	141	2.3%	147	4.5%	154	4.2%
엔터프라이즈소프트웨어(Enterprise Software)	278	3.3%	296	6.4%	316	6.8%
IT서비스 (IT Services)	881	1.8%	927	5.2%	974	5.1%
텔레콤 서비스 (Telecom Services)	1,661	-0.1%	1,701	2.4%	1,742	2.4%
총합(Overall IT)	3,588	1.2%	3,737	4.2%	3,881	3.8%

자료: 가트너 (2013. 1.)

Ⅲ.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내

가. 지식경제부

-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의 하나로 추진된 SW자산거래소 ‘SW뱅크’ 1월말 오픈 (2013. 1. 03)
 - SW뱅크는 공유가 어렵고 활용되지 못하는 공공·민간부문의 SW 기술과 제품을 등록, 공유해 필요한 사람이 쉽게 찾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 수요자가 웹사이트(www.swbank.kr)에서 필요한 SW 기술이나 제품을 탐색해 적합한 대상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 공급자와 연결하고, 양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정부는 SW뱅크를 통해 SW 자산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확보된 SW 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유망기업 양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현재 약 800건의 SW 자산이 DB로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SW 연구개발 결과물이 약 450개로 가장 많고, 민간기업의 SW 제품 등이 나머지를 차지
 - SW공학센터는 SW 개발자, SW 기업 마케팅 담당자, 정보화 프로젝트 발주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보고 있으며, 수요자 대상 세미나와 설명회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을 준비

- 2013년 산하기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개 SW를 도입하기로 결정(2013. 1. 4)
 - 지경부 산하 4개 기관을 중심으로 공개 SW 기반의 클라우드 시범 사업을 1월 중 발주할 계획
 - 총 3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지경부는 클라우드 구축 모델을 만들어 추후 60여개 산하기관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
 - 공개SW 기반의 클라우드 전환을 전제로 해, 국내 공공기관의 공개 SW 도입 확산의 기폭제가 될 전망

□ 대기업 참여가능 공공정보화 2개 사업 추가 (2013. 1. 14)

-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 구축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수변전시설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이 추가
- 국가정보원 정보화 사업은 지식경제부에 신청만으로도 예외적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담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3호를 최근 개정, 고시
- 개정 고시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 예외 인정을 요청한 SW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제8조의2를 추가

□ 국산 상용SW의 공개SW 전환 유도 정책 강화 (2013. 1. 14)

- 정부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한 비공개 상용 SW의 공개SW 전환 가이드를 만드는 등 상용SW의 공개SW 전환 유도 정책을 강화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개SW 전환 프로세스, 공개SW 라이선스 적용방법, 비즈니스 모델 수립방법 등을 담은 오픈소스SW 전환 가이드를 상반기에 개발, 보급할 계획
- SW기업으로부터 SW 제품이나 기술을 기부 받아 공개SW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용SW의 오픈소스SW 전환 노력을 강화할 계획

□ SW분리발주 제외적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13. 1. 29)

- SW 분리발주 적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예외 적용도 늘어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침
- 개정안은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별로 작성하도록 한 사유를 SW 품목별로 작성, 게시하도록 의무화
- 발주기관이 SW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분리발주 대상 SW 품목별로 제외사유서를 만들어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함

나. 행정안전부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체계 도입 추진 (2013. 1. 22)
 -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체계가 마련 시행
 - 성능평가체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올 상반기 중에 2개의 정보보호 제품군(웹방화벽, IPS)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시범적으로 성능평가를 할 계획

-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 실시 (2013. 1. 8)
 -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 청구하고 공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정보공개 서비스」를 실시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과 한국토지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9개 주요 공사·공단에 대해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
 -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전공개정보 통합 검색 서비스도 추가해 나갈 계획
 - '13년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확대 (2013. 1. 30)

 -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해온 결과 '2013년도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확대됐다고 발표
 - 중소기업 참여율이 당초 목표를 초과한 것은 건전한 국가정보화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일로 평가하고,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전자정부 운영·유지보수 능력이 제고되도록 노력

다. 방송통신위원회

- '12년도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3. 1. 15)
 - '11년도에 비해 오탐 제품의 감소와 필수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의 증가로 전반적인 성능은 향상되었으나, 다수의 불량 백신 또한 여전히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방통위는 오탐, 성능미달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 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시정토록 권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찰청·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

- 국내 무선랜(와이파이) 보안 수준 진일보 (2013. 1. 07)
 - 전국 17개 시·도, 48개 지역에 설치된 무선공유기(AP) 82,260대를 대상으로 무선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안이 적용된 무선랜 비율이 2011년 73.8%에서 2012년 81.6%로 증가되었다고 발표
 - 무선랜 이용 경험이 있는 만 12세~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랜 보안인식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무선랜 보안설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78.2%→81.8%)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월 18일부터 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 시행 (2013. 1.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개정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등 고시 3건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에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정보보호조치 권고 기준, 신규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계획·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이 반영

라. 국토해양부

- 공간정보에 빅데이터 분석기술 적용 (2013. 1. 22)
 - '중장기 국토정보 R&D 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미래 국가경쟁력 핵심자원으로 공간정보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
 - 공간정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천후 차세대 초경량 무인항공기와 공간정보 전용위성 기술도 개발
 - 이를 기반으로 20만개 일자리 창출과 200조원 이상의 국내 공간정보 시장 형성을 위한 기술을 내놓을 계획
 -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서비스를 제공하고 테스트 베드를 구축, 공간정보 SW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 기술도 개발, 국토공간 이용 현황 조사체계와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지원 (2012. 12.06)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녹색물류전환 지원 사업을 확대·실시, 지원 예산도 지난해 8억 원에서 16억5000만원으로 확대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은 물류 활동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실시간으로 산정·분석해 DB화 하는 정보시스템

라. 서울시

□ 2013년 정보화사업 설명회 개최 (2013. 1. 14)

- 577개 정보화 사업에 총 1천 544억원을 투입,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구축 사업만 44개 마련
 - IT부분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사업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 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화사업 중 관심사업과 간단한 기업정보를 함께 제공한 업체의 정보는 관심 사업별, 주력사업 분야별로 분류하여 해당사업이나 향후 정보화 관련 사업 추진 시 기술문의, 시장조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제공될 예정

□ 정보화사업 중기 참여 확대 (2013. 1. 21)

-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정보화사업에 중소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
 - 서울시가 정보화예산을 소규모 사업으로 집행하면서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 됐기 때문
 - 2013년 정보화예산으로 잡은 1544억 원을 577건(1건당 평균 2억 6000만원)으로 나눠 소규모 정보화사업으로 발주할 계획
 - 이중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677억 원, 정보자원 인프라 구축(HW·SW 구매)에 456억 원 등이 투입
 - 유지·보수 사업을 집행하면서 대기업은 처음 구축했던 대기업만 입찰에 참여시키고, 대신 중소기업은 제약 없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해 중기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

2. 해외

□ 미 특허청, 의견 수렴을 거쳐 SW특허 개선작업 착수(2013. 1. 7)

○ SW 특허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

- 2월 실리콘밸리와 뉴욕 시에서 두 차례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갖고 일반인들로부터 SW 특허 관련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
- SW 특허권의 "기능 청구 범위('functional claims)'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에 주력할 예정
- SW 특허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과 방법'을 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무차별 특허 소송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자로 규정된 SW 특허권의 기능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
- 특허청이 이번에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마련한 것은 특허의 기능과 보호범위를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

□ 미 국토안보부, 사이버범죄 예방차원 '자바' 사용중단 권고 (2013. 1. 14)

○ 미국 당국이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 SW를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발표

- 인터넷보안 관련 기관인 CERT를 통해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으로 널리 쓰이는 자바 7 SW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 자바 SW가 악성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커들이 침입하기 쉬운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개정안을 발표 (2013. 1. 3)

- 아동들의 스마트폰과 위치기반 앱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의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 분야를 포함하여 기존 법안을 강화

- *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13세 미만 아동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 시 부모의 동의를 얻고,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법

□ EU, 2013-2014년 디지털 어젠다 7대 우선 전략 발표 (2013. 1. 10)

- EU 집행위원회(EC)는 2010년 채택되었던 유럽 디지털 어젠다
(Digital Agenda for Europe, DAE)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13-2014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될 7대 우선 전략 발표
(2013.1.10.)
 - 7대 우선 전략은 유럽 디지털 어젠다 핵심 요소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집행위원회는 브로드밴드 투자 확대와 디지털 분야의 유럽
경제회복 기여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유럽 사이버범죄센터(EC3) 공식 출범 (2013. 1. 14)

- EU 집행위원회(EC)는 점증하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범유럽 차원의 효율적 대응을 목표로 하는 '유럽
사이버 범죄 센터'(European Cybercrime Centre(EC3))의 공식 출범을
발표(2013. 1. 14.)
 - 센터에서 특히 주력하게 될 사이버범죄 3대 영역은 ①온라인 사기와
같은 조직화된 범죄 활동, ②온라인 아동 성추행과 같은 심각한 피해
유발 범죄, ③EU 주요 인프라 및 정보 시스템을 타겟으로 한 범죄

IV. SW 시장 및 기술 동향



가. 패키지 SW 시장 동향

- SW업계,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책 사업을 본격화
 - SW업체들이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전자책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올해 다양한 사업 활동을 벌일 것으로 전망
 - 한컴, 나모인터랙티브 등 기업은 상반기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준비 하며 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넓혀가겠다는 계획
 - 정부는 2015년부터 초·중·고교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발표 하면서 SW업계가 전자책 사업에 속도를 냄

SW기업들의 전자책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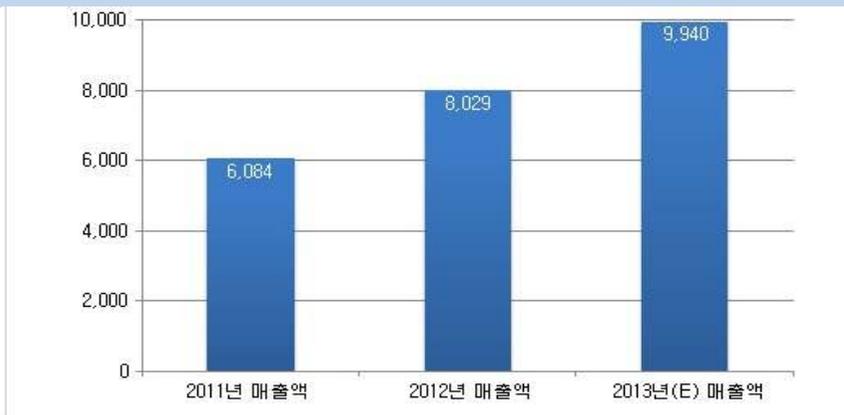
기업	내용
한글과컴퓨터	-2012년 초 신규 주력사업으로 전자책 사업을 꼽은 이래 한 해 동안 닦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올해 전자책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 -당초 지난해 말 출시할 예정이었던 전자책 저작 도구 제품을 상반기 중으로 선보인다는 방침 -지난해 관련 제품은 완성됐지만 기업용, 개인용 등 타깃 시장과 라이선스 정책 등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이에 대한 내부 조율을 거칠 예정 -다양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뷰어 '한컴리드온'과 앱북 사업은 올해도 계속 이어갈 계획
나모 인터랙티브	-상반기 중으로 '나모 이북에디터 2.0'버전을 출시 -전자책 최신 표준 포맷인 '이펙 3.0'기술이 구현됐으며, 회사는 이 제품을 기반으로 기업용(B2B), 개인용(B2C)시장 모두 겨냥할 계획 -2012년 말 전자책 출판사를 인수해 자회사인 '나모필링북'을 설립, 나모 이북에디터 2.0 버전을 기반으로 한 전자책 출판업까지 시도
다우인큐브	-2012년 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디지털 교과서 시범사업 수주를 비롯해 최근 KT의 이러닝 사업 등 교육분야에서 고객사를 늘려가고 있음 -올 상반기 중으로 이펙 3.0 기반 디지털교과서에 특화된 SW 저작 도구를 만들어 라이선스 판매 사업을 진행할 계획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보안업계, 주요 정보보안 기업의 2013년 총 매출목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매출 100억 원 이상 20여 개 기업의 2013년 총 매출목표는 9천 94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
 - 개인정보보호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발생으로 보안관리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고, 보안위협의 지능화, 고도화에 따른 보안컨설팅 시장의 활성화도 주요 성장요인으로 작용
- 해외시장에서의 매출 상승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시장에서는 올해에도 침입방지시스템, 차세대 방화벽 등 주력 제품을 기반으로 입지를 다져 나갈 계획
 - 동남아 시장에서는 공공부문 시장을 개척하고 리셀러 확보 등 현지 진출노력을 강화
 - 미국시장에서의 현지 파트너십과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진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
- 올해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기반보호(ISMS) 강화와 금융권 보안강화, 스마트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등 신규 플랫폼에 대응으로 보안제품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스마트워크와 BYOD(Bring Your Own Device), 융합보안, 임베디드 등과 연관된 제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매출 100억 이상의 국내 주요 정보 보안 기업 20개의 매출액 (단위 : 억 원)



자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 2013년 국내 방화벽 시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
 - 올해 최대 1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방화벽 시장이 후발 기업 참여가속화로 치열한 경쟁 예상
 - 넥스지 등 후발 주자들이 차세대방화벽을 대거 출시할 예정이어서 선발 주자인 안랩, 시큐아이닷컴과 경쟁 예상

주요 방화벽 업체들 올해 공략 목표

업체명	주요 공략 산업군(목표)
시큐아이닷컴	공공, 금융, 해외
안랩	은행, 증권, 정부 통합전산센터 등 공공
포티넷코리아	온라인서비스, 통신사, 금융사
퓨처시스템	금융 집중 및 일반 기업군
넥스지	공공 및 국방시장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나. IT서비스 시장 동향

- IT서비스기업, 신사업을 2013년 핵심 사업으로 확대
 - 삼성SDS·LG CNS·SK C&C·포스코ICT·롯데정보통신 등 대형 IT 서비스 기업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신사업을 올해 핵심 사업으로 확대
 - 기존 IT서비스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차원으로 신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확대
 - 삼성SDS 4자물류(4PL), LG CNS 전기차 관련 사업, 포스코ICT 신재생 에너지 및 LED사업, 롯데정보통신 지능형빌딩시스템(IBS) 등 IT 서비스 기반 신사업 발굴 및 핵심사업화 목적으로 추진

대형 IT서비스기업의 핵심 신사업 추진 현황

기업	신사업	추진 내용
삼성SDS	물류IT	-물류 패키지 SW 개발, SCM 등 물류인력 1300명 확보 -삼성그룹 계열사와 두산, 포스코 물류 IT사업 참여 -중장기적으로 4PL 사업으로 확대
LG CNS	전기차세어링	-서울시 전기차 세어링 서비스 사업자로 선정 -전기차 세어링 사업 전담 자회사 설립
SK C&C	온라인중고차 매매	-SK엔카 기반으로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업 검토 -자동차배터리 관리 시스템 개발 중
포스코ICT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LED 사업 추진
롯데 정보통신	스마트빌딩	-IBS 기반으로 U주차 등 다양한 지능형 빌딩 사업 추진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견 IT서비스 업체, 금융IT 시장 공략에 나선

- 금융IT 시장은 삼성SDS 등 빅3 IT서비스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중견 IT서비스 업체도 공략에 나선
 - 한화S&C·대우정보 등은 제2 금융권 등서 성과를 내고 있고, 다른 기업은 금융 IT시장 공략 준비 중

중견 IT서비스 업체의 금융IT 시장 공략 내용

기업	내용
한화S&C	-2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신탁중앙회 차세대 공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주사업자로 선정돼 이달 말 킥-오프를 갖고, 18개월간 구축에 돌입 -한화금융네트워크(한화생명, 한화증권, 한화손해보험)의 시스템 운영을 진행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외 금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진행할 예정
대우정보시스템	-SC캐피탈과 NH증권 인프라운영, 키움증권 차세대시스템 등을 현재 구축중이며, 현대캐피탈 차세대 시스템도 최근 수주
동양네트웍스	-2000년대 초반 알리안츠생명 차세대 시스템부터 현재 제2금융권 중심 현대라이프 차세대 시스템과 SC은행 IT아웃소싱 프로젝트를
현대정보기술	-우정사업정보센터 체신금융분산시스템 레퍼런스를 활용
코오롱베니트	-금융감독원 DART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KRX 차세대 상장공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 금융 사업을 수주 목표
아시아나HDT	-금융사업팀을 통해 솔루션 위주에서 금융SI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IT서비스 업체, OEM 기반 신사업 창출 총력

- 전통적인 SW 및 서비스 기반 사업에서 벗어나 주문자생산방식 (OEM) 제조기반 신사업 창출이 본격화
 - 농심NDS, 동부CNI 등 기업들은 HW 및 장비를 직접 생산해 HW와 솔루션을 결합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 목표

IT서비스 업체의 OEM 기반 신사업 내용

기업	내용
농심NDS	-환경 IT분야 강화를 위해 최근 수질 측정장비 개발을 완료 -유지보수 및 판매 등을 농심NDS가 전담하게 되며 제품 생산은 중소기업의 OEM으로 진행 -서울시립대, 중소기업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관련 장비 개발
코오롱베니트	-전사적인 역점 사업인 헬스케어 포털 '해빛'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OEM 방식의 태블릿 PC 유통에 나섬 -해빛 태블릿PC'로 브랜딩 된 태블릿 PC 제조는 중소기업이 맡고 코오롱베니트가 유지보수 및 유통을 전담하는 구조
동부CNI	-CCTV 영상저장 특화 스토리지 'CCDRIVE'를 OEM을 통해 생산하며 유지보수와 유통은 마찬가지로 동부CNI가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모델을 구현 -지속적인 OEM 기반 장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IT서비스업체, 공공시장 공략 전열 정비

- 2013년부터 시행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맞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IT서비스기업들이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섬
 - 본격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공공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

IT서비스업체, 공공시장 공략을 위해 조직 정비 내용

기업	내용
DB정보통신	-사명을 대보정보통신으로 바꾸고 그룹과 C를 통일해 공공정보화시장에 공략을 강화할 계획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빅3 IT서비스기업에 근무한 경험을 갖춘 공공인력 영입을 바탕으로 공공 시장 공략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임베디드SW 시장 동향

- 임베디드SW산업협회-ETRI, 임베디드SW플랫폼 확산위해 '오픈시드' 구축
 - 2013년부터 수행하는 '이기종 멀티코어용 임베디드SW 플랫폼'기술을 개발하고 공개, 확산하기 위해 '오픈시드(OpenSEED)'를 구축
 - 이기종 멀티코어용 임베디드SW 플랫폼은 서로 다른 종류의 멀티코어(프로세서) 시스템에서 멀티코어의 성능과 전력관리 기능을 극대화 해주며, 개방형 병렬프로그램 표준인 오픈CL을 기반으로 병렬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오픈시드는 개발자에게 버전관리와 SW개발 관리 환경을 제공
 - ETRI가 배포한 소스코드를 다수의 사용자들이 수정하고, 저장소에 업로드하면 다른 사용자들에게 결과물이 공유되는 방식

라. 공개 SW 시장 동향

□ 공개SW 사용땐 총소유비 60% 절감

- 한국경제예측연구소에 의뢰해 수행한 공개SW와 상용SW 총소유비용 비교연구 결과, 공개SW가 정보시스템, PC, 클라우드 컴퓨팅 영역에서 모두 60% 내외의 총소유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냄
 - 총소유비용은 SW 사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구입비, 라이선스비, 업데이트비, 훈련·교육비, 유지보수비, 기술지원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사용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함
 - 오픈소스 운영체제(OS)인 리눅스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이 유닉스 기반 시스템보다 비용을 7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공개SW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 내부 인력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많은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

상용SW와 공개SW의 총소유비용 비교(단위: 만 원)

적용분야	상용SW 총소유비용	공개SW 총소유비용	공개SW 적용시 상용SW 대비 절감액	공개SW 적용시 상용SW 대비 절감비율
정보시스템	54,556	19,999	34,557	63.3%
PC실	6,253	2,537	3,716	59.4%
클라우드컴퓨팅	40,333	15,653	24,681	61.2%

자료: 한국경제예측연구소

마. 신사업 시장 동향

1)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IT서비스기업, 2013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운영 활발
 - 삼성SDS, LG CNS 등 IT서비스 업체들은 저전력과 고객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추진
 - LG CNS 올 초부터 운영예정, 삼성SDS 국내4곳, 해외 4곳 운영, SK C&C 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화 추진 예정 등

IT서비스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가동 내용

업체	내용
LG CNS	-2013년 초 부산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 -부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에 비해서는 외기공조를 통해 냉방비를 아끼는 저전력구조로 개발
삼성SDS	-2007년 말 개관한 수원 데이터센터 내에는 '삼성SDS 클라우드컴퓨팅센터'가 위치
SK C&C	-대전을 비롯해 일산과 보라매 등 국내 3군데 데이터센터를 갖추고 있음
포스코ICT	-2013년 상반기부터 충주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그룹사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

자료: 각 사 보도자료

2) 모바일(Mobile)

- BYOD 흐름에 모바일 DRM 수요 증대 예상되면서 DRM 업계 분주
 - BYOD(Bring Your Own Device)의 확산으로 모바일 디지털저작권관리(DRM)도 수요확대가 예상
 - 모바일 문서 암호화 뿐 아니라 화면 캡처 및 사용제한 등 기타 보안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 추세

DRM 기업들의 영업 강화 내용

기업	내용
파수닷컴	-PC와 서버에만 적용되던 문서보안을 모바일 영역으로 확장한 '파수 모바일 솔루션'을 2월 중 출시할 계획 -이 솔루션은 기존에 열람(view) 기능만을 제공하던 '파수 모바일 게이트웨이'를 업그레이드해 편집 기능을 추가한 것이 특징 -기존 DRM 고객을 중심으로 모바일 DRM 솔루션을 추가로 도입해 나가며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
마크애니	-올해 '신규사업실'을 신설하면서 모바일 사업 분야를 강화 -모바일 DRM 솔루션 '시큐레디'를 출시한 마크애니는 사업본부에 5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채널 다각화를 통해 영업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모바일 DRM 사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풍그룹을 포함한 한국투자증권, 동국제강, C&M 등 다수의 기업 및 금융권 등에 제품을 공급

자료: 각 사 보도자료

3) SNS(Social Network Service) & Social Media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SNS에서 유통된 불법정보에 대해 4천454건으로 파악
 - 2008년 36건, 2009년 54건 수준이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2010년 345건, 2011년 780건을 기록
 - 스마트폰 대중화로 SNS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정보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분석

4) 검색서비스

- 인터넷 포털업계,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 치열
 -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포털 3사는 모바일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대폭 개편
 - 인터넷 포털 업계는 게임 부문과 모바일 부문 사업을 강화하며, PC 쪽에서의 실적 부진을 모바일에서 만회하겠다는 전략

국내 포털업계의 모바일 시장 공략을 위한 조직 개편 내용

기업	내용
NHN	-올해 비전을 ‘모바일 퍼스트’로 잡고, 모바일 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NHN은 올해 3월에 ‘NHN 모바일(가칭)’을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예정 -NHN 모바일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 파이낸스센터에 입주하며, 포털과 게임 부문의 모바일 관련 사업을 진행해오던 인력 200여명이 배치 -검색, N드라이브, 지도, 메일 등 웹 기반의 서비스를 30여종의 앱으로 출시
다음	-‘마이피플’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마이피플과 연동되는 모바일 게임을 다수 출시할 계획 -일본 모바일 게임 전문업체 디엔에이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모바일 게임 100여종 이상을 선보일 계획 -스포츠 게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모바일 스포츠게임도 독자 개발중
SK컴즈	-작년 11월 사업을 SNS와 검색 포털 부문으로 나눠 개편하는 한편, 미래산업 본부 산하에 신설한 NSP(넥스트소셜플랫폼) 전략 그룹을 통해 차세대 SNS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정비 -싸이월드 앱에 게임센터인 SNG를 서비스하는 ‘싸이게임’을 오픈
KTH	-포털 사업을 공식적으로 접은 후 모바일 사업에 집중 -작년 11월, 모바일 서비스 및 게임 분야를 사내벤처로 전환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조직을 재편 -푸딩/갤러리 푸딩얼굴인식, 아임IN, 114전국전화, 모바일게임 등 총 6개의 사내벤처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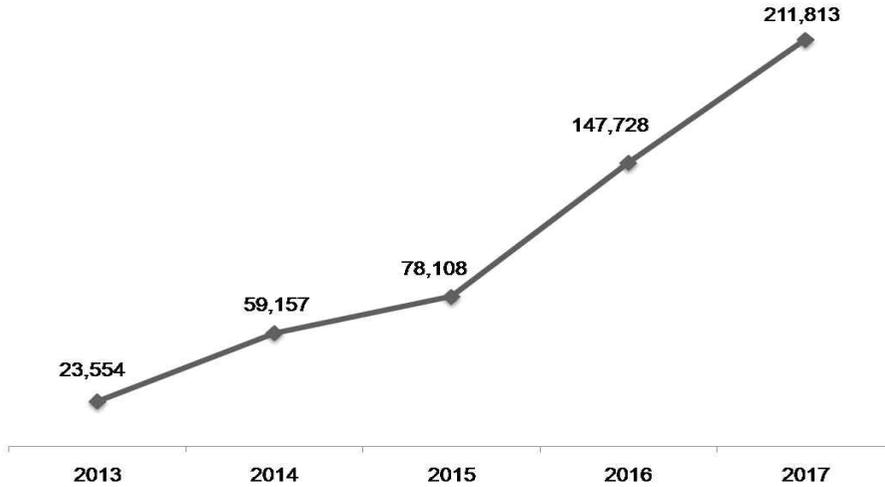
자료: 각 사 보도자료

5) 빅데이터

□ 빅데이터 일자리 5년간 52만개 창출

- 빅데이터 시장 성장으로 '13년 2만3000여개에서 '17년 21만개로 향후 5년간 5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
 - 수요가 증가하는 빅데이터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강화 필요

국내 빅데이터 일자리 창출 효과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 IT서비스 업체, 빅데이터 시장 공략 본격화

- IBM · 오라클 등 글로벌 IT기업에 이어 삼성SDS, LG CNS 등 빅데이터 시장 공략을 본격화
 - 자체 개발한 신제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해 사업기회를 모색 중

IT서비스 빅3 빅데이터 사업현황 (주관부서 및 솔루션)

기관	내용
삼성SDS	-컨설팅센터와 CSP연구소 -오픈소스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중
LG CNS	-‘빅데이터’를 담당하던 솔루션사업본부 ‘AA센터’를 BI(Business Intelligence)와 DW(Data Warehouse) 조직과 합쳐 사업부 수준인 ‘AA사업부문’으로 확대 개편 -2012년 스마트빅데이터 플랫폼(SBP) 출시
SK C&C	-클라우드컴퓨팅사업팀 -올해 데이터분석솔루션 스템 출시 예정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가. 비즈니스 및 제품 동향

- (안랩) 차세대 원격관제 서비스 및 V3베타 공개
 - 안랩의 차세대 원격관제 서비스는 APT(지능형지속가능위협) 공격, 탐지 우회, 알려지지 않은 공격 등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해 대응
 - 차세대 원격관제는 방화벽, IDS(침입탐지시스템), IPS(침입방지시스템) 뿐만 아니라 주요 서버와 엔드포인트 PC의 패킷, 트래픽, 악성코드까지 모니터링
 - V3의 탐지력, 검사 속도 등을 향상시킨 백신 'V3베타'는 새로운 엔진인 'MDP (Multi-Dimensional Protection) 프레임워크'가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탐지력, 검사 속도, 엔진 크기의 성능이 향상됨
 - V3라이트 등 개인용 제품군과 보안관제, APT 대응 솔루션인 트러스트와처 등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 계획

- (LG유플러스) 지능형빌딩 솔루션 '호텔팩' 출시
 - 인터넷 회선 등의 통신 인프라는 물론 호텔 객실 예약관리부터 고객 개별 과금, 통계까지 관리하는 솔루션 출시
 - 이 상품은 호텔용 중계 안내서비스, 호텔 음성사서함, 자산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

- (원스टे크넷)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스캔 웹(Scanweb)서비스' 오픈
 - 스캔 웹 서비스는 사용자가 접속하는 웹페이지와 한컴오피스 파일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사용자PC의 취약성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
 - 최근 정부기관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한컴오피스 문서파일이 사용됨에 따라 악성코드 탐지의 중요성 증대

- (블락스톤) 종합병원 통합관리 SW 'M스타1.0'을 출시
 - 대형 종합병원이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병원관리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SW 출시
 - 병원 간 구매자산 비교와 분석, 인사, 급여 정보 등의 통합 관리가 가능, 국내에 이어 동남아 수출 계획

- (KT) 인터넷 접속해 이용하는 '올레 인터넷 MS 오피스' 출시
 - KT가 올레 인터넷이나 와이브로를 이용하는 고객이 온라인에서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올레 인터넷 MS 오피스' 서비스를 출시
 -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어느 곳에서나 이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 가능

- (신세계아이앤씨) '생체정보 기반 전자서명 솔루션' 유통사업 본격화
 - 생체정보 기반 전자서명 솔루션인 '다큐트러스트(DocuTrust)의 총판권을 획득해 이달부터 전자문서 시장 영업에 들어감
 - 지문 특징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기준을 준용해 설계함

- (시큐엠) 스마트폰 앱 이용한 인증 솔루션 개발
 - 스마트폰의 고유 단말 정보를 활용해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등에 활용하는 솔루션을 개발
 - 번호나 문자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앱을 실행한 뒤 확인 버튼만 누르면 돼 인증 절차가 간소한 것이 특징

- (모젠소프트) 네트워크 분석·포렌식 솔루션 '엔크로노스' 출시
 - 애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등 다양한 유형의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분석, 포렌식 기능이 통합된 '엔크로노스(nChronos)' 제품을 출시
 - 트래픽 분석 기능과 악성코드, 내부자료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분석 기능이 결합된 제품

2012년 11월 국내 SW 주요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 현황

업체명	출시 제품	비즈니스 전략
안랩	차세대 원격관제 서비스	-자체 기술인 서비스 전용 장비인 '세피니티 블랙박스(AhnLab Sefinity Black Box)'를 별도 개발하고, 악성코드 다운로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 수집, 패킷 모니터링, 플로우(flow)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
	V3베타	-V3라이트를 비롯한 개인용 제품군과 보안관제, APT(지능형 지속가능위협) 대응 솔루션인 트러스트와치 등 거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시킬 계획
윈스테크넷	스캔웹(Scanweb)	-서비스 검색 창에 사용자가 알아보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입력하거나 분석하고자 하는 문서파일을 업로드하면 감염된 웹사이트와 악성 파일 여부를 확인할
LG유플러스	U+ 스마트빌딩 호텔패키지	-기존 호텔들의 경우 각기 별도로 통신 서비스와 장비, 관리 솔루션을 구매해야만 했지만 U+ 스마트빌딩 호텔패키지를 이용하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
KT	올레 인터넷 MS 오피스	-기본적으로 2G의 저장공간이 제공돼 유클라우드 상에서 오피스 문서를 저장 및 편집할 수 있으며, 올레 인터넷이나 와이브로 상품과 연계한다면 무료로 제공되는 50G의 유클라우드 저장공간을 이용해 대용량의 자료도 무리 없이 안전하게 보관 가능
아크로니스 코리아	vm 프로텍트8	-클라우드 시스템과 VM웨어 기기에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할 때 속도를 크게 향상시킨 것이 특징
시큐엠	스마트폰 앱 이용한 인증 솔루션	-매번 카드번호를 입력한다거나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쓰는 방식이 아닌 앱을 실행 후 확인 만 누르면 인증 가능
블랙스톤	M스타1.0	-병원 간 구매자산 비교와 분석도 가능해 병원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의사와 간호사가 같은 계열의 어느 병원에 근무 하더라도 인사, 급여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신세계I&C	다큐트러스트 (DocuTrust)	-지문 특징정보를 이용한 전자서명 솔루션인 다크트러스트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기준을 준용해 개인정보보호에 주안점을 뒀 설계
모젠소프트	엔크로노스 (nChronos)	-애플리케이션 사용 현황 등 다양한 유형의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고, 동시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모든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저장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나. 해외 진출

- IT서비스 업계, 자체개발한 신제품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섬
 - 삼성SDS 등 IT서비스기업은 2013년은 SI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서 솔루션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
 - 자체 개발한 신제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해 사업기회를 모색

IT서비스기업들의 해외시장 신제품 출시 내용

기관	내용
삼성SDS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모바일 통합 플랫폼인 SEMP(Secure Enterprise Mobility Platform) 수출 -유럽 대형 IT서비스기업과 협력해 지난해 10월 유럽, 아프리카에 MDM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
LG CNS	-빌딩 한 채부터 대규모 도시까지 스마트 그린화 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출시 -공장설계 컨설팅부터 SW, HW 구축과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장구축 통합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출시 -국내 최초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인 '스마트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SBP)'을 출시 -SAS, 마이크로소프트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해외시장에 빅데이터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계획
SK C&C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솔루션인 '넥스코어 모바일(NEXCORE Mobile)'로 2013년 중동과 중남미시장을 개척함 -중동과 남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지 고객사와 유통사들과 함께 사업기회를 모색

자료: 각 사 보도자료

- 중소기업, 해외 개발자 활용 꾸준히 증가
 - 중소기업의 SW인력 충원률은 76%로 SW 인력부족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 인력 채용이 증가
 - 해외 법인을 통한 확보 및 해외 아웃소싱 개발센터(ODC) 활용, 해외 대학과의 제휴 등 다양한 현지 개발 인력 확보 노력

중소기업의 해외 개발자 활용 내용

기업	내용
웹케이	-2013년 캄보디아에 법인을 세우고 현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
영림원소프트랩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개발인력을 활용
솔트룩스	-베트남에 연구개발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지 인력을 SW 개발에 참여
와이즈넷	-중국 상하이에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현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

자료: 각 사 보도자료

다. 기업 간 협력 및 제휴 동향

- (한컴, VM웨어)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위해 파트너십 체결
 - 한컴은 가상화와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인 VM웨어와 'OEM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섬
 - 양사는 클라우드 결합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다각적인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
 - 한컴은 '짐브라' 기반의 '씽크프리 협업 솔루션'으로 기존의 고가의 문서, 메일, 협업 솔루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합리적인 가격과 기능 효율성을 바탕으로 협업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시장 및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

- (한화S&C, SAP코리아) DB 분야 사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
 - 이번 제휴로 SAP 사이베이스 IQ, SAP 사이베이스 ASE, SAP HANA 등 SAP DB 솔루션에 대한 공동영업을 진행
 - 한화그룹 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쌓은 DB프로젝트 경험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외 시장 공략도 강화
 - 한화그룹 내 제조와 금융, 유통,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한 IT 비즈니스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SAP코리아와 국내 DB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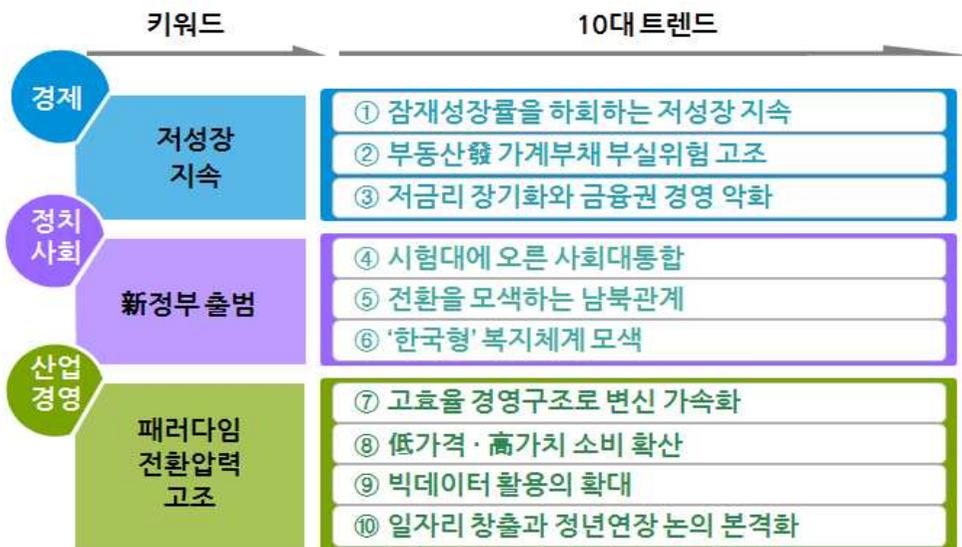
V. 주요 리포트



가.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 '저성장'과 '신정부'하에서 '패러다임 전환 압력'이 고조되는 한 해
-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
 - 세계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한국경제는 성장동력 회복이 지연되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지속
 - 신정부는 사회대통합과 남북관계 전환을 모색할 전망
 -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
 - 저성장 장기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로 전환하고, 소비리스크에 더욱 민감해진 고객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
 -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는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이 불가피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요약

No	10대 트렌드	내용
1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약화로 인해 저성장이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 - 수출(주동력), 내수(보조동력), 정부(예비동력)의 3대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 - 저성장 장기화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2013년
2	부동산발 가계부채 부실위험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기둔화로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고조될 우려 - 주택경기 침체로 과다차입에 의존한 주택구매자의 채무상환부담이 확대 - 경기둔화로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악화 -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
3	저금리 장기화와 금융권 경영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성장 속에서 저금리 상황이 장기화됨으로써 금융권의 수익성이 악화 - 리스크 관리 강화로 저금리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 - 금융회사는 수익구조 다변화, 해외시장 진출 등 신규 수익원 발굴에 주력
4	시험대에 오른 사회대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정부는 성장과 통합의 조화를 위해 '창조적 공존' 정책을 추진할 전망 - 심화된 사회적 균열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을 구체화 -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주체 간 응집력을 제고하는 행정적·법률적 인프라 구축
5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의 대북정책 유연화와 북한의 대외관계 안정화 기조로 협상국면이 전개 -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는 상반기 내에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그 결과에 따라 6자회담도 복원될 전망 - 협상 재개가 늦어지거나 교착 시 3차 핵실험, 대남 도발 등 위기요인 상존
6	'한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신정부는

	복지체계 모색	<p>한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체화할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친화적 복지체계 구축과 복지행정체계의 효율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 현재 13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292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
7	고효율 경영구조로 변신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高·엔低, 주력시장 저성장 심화 등에 직면한 한국기업은 비용우위와 수익창출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봉착 - 원가혁신, 가치사슬 통폐합, 비즈니스모델 혁신 등으로 저성장 장기화에 대응 - 추진 중인 인수종사업을 재점검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8	低가격·高가치 소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황이 지속되면서 할인기회 등 구매타이밍을 조절하는 영민한 소비가 확산 - 低사양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할인기회를 기다리고, 할인 도구를 적극 탐색 - 가격할인과 유통점 혁신으로 영민한 소비자에 대응하는 불황형 마케팅이 진화 · 특히, 유통매장에서 상품을 구경하고 실제 구입은 온라인에서 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할인과 디지털 체험을 극대화한 온-오프 통합형 옴니채널(omni-channel)이 빠르게 확산
9	빅데이터 활용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 위기가 고조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빅데이터 자원 발굴과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 - 빅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업무 혁신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 汎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통해 연내 빅데이터 생태계 육성정책을 시행할 예정
10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사제도 변화가 불가피 - 직책 중심의 직급 및 승격체계,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3.1) 재정리

나.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 2013년 해외 트렌드의 키워드는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
 - 세계경제의 위기감은 다소 진정되었지만 저성장이 장기적 추세로 고착
 - 선진국은 긴축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정긴축 지속이 불가피하여 투자 및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저성장이 장기화
 - 양적완화정책 확대는 실물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전망
 -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지역, 기업 등의 협력 및 공조 체제가 약화되고 각자 생존을 도모하는 형국
 - 저성장 극복을 위해 각국이 자국산업 보호와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환율, 통상,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확산
 - 동아시아와 중동 등에서 분쟁이 지속되고 계층·지역 간 갈등도 고조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저성장	 갈등	 각자도생
경제	① 성장을 억누르는 선진국의 재정긴축	② 글로벌 환율갈등의 파장 확대 ③ 新경영리스크로 대두하는 글로벌기업 규제 ④ 아시아를 둘러싼 美中의 통상주도권 경쟁	
산업 경영	⑥ 어려움이 지속되는 新재생에너지산업		⑤ 모바일산업의 주도권 쟁탈전 심화 ⑦ 제조업 투자유치전 본격화
정치 사회		⑧ 동북아 외교갈등 완화 모색 ⑨ 중동 정정불안 확대 ⑩ 고통분담을 둘러싼 갈등 심화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요약

No	10대 트렌드	내용
1	성장을 억누르는 선진국의 재정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재정긴축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을 제약 - 유로존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 - 재정긴축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 및 투자가 위축
2	글로벌 환율갈등의 파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환율갈등이 선진국 간, 선진국과 신흥국 간으로 확산되고 심화 - 선진국의 양적완화가 글로벌 환율갈등의 불씨로 작용 - 환율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공방으로까지 확산
3	新경영리스크로 대두하는 글로벌기업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등 각국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로 글로벌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 무역뿐 아니라 조세, 경쟁법 등 다방면에서 기업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 글로벌기업은 현지법 준수, 조세전략 재검토 등 대응노력을 본격화할 전망
4	아시아를 둘러싼 美中의 통상주도권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2 간 대결이 무역분쟁에서 아시아 경제질서 구축 경쟁으로 확산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상이한 경제협력체 경쟁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
5	모바일산업의 주도권 쟁탈전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모바일산업은 ① 주도기업의 라인업 확대, ② 서비스기업의 기기 출시, ③ 중국기업의 상위권 진입으로 경쟁구도의 지각변동이 진행 - 스마트기기 시장이 대폭 성장하고 중저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6	어려움이 지속되는 新재생에너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① 기후변화협약 교착, ② 재정위기로 인한 정책지원 감소, ③ 셰일가스를 비롯한 화석연료 가격 하락 등으로 2013년에도 부진 지속 - 태양광과 풍력터빈 등의 과잉공급과 바이오연료 생산원료의 고비용 문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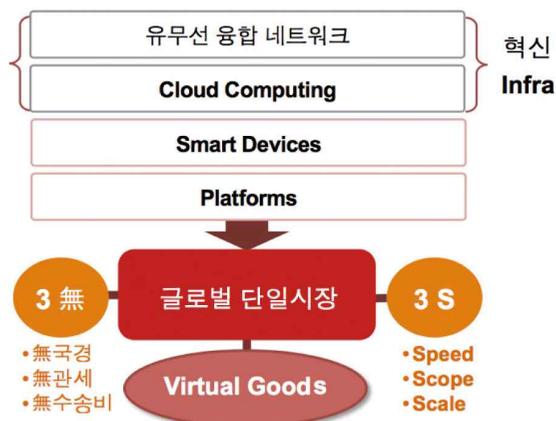
7	제조업 투자유치전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며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 - 선진국은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신흥국은 탈중국 현상을 기회로 삼아 제조업 투자유치를 강화
8	동북아 외교갈등 완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강대국의 국내 정치지형 변화로 외교적 불확실성이 증대 -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 中日간 민족주의 충돌 등 역내 갈등 양상은 지속 - 전면적 대결보다는 견제와 실용 추구를 병행하는 조심스런 외교적 행보가 예상
9	중동 정정불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핵문제, 시리아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으로 위험이 확산 - 협상 난항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유가 하락을 제한 -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에도 시리아 내전 종식 및 정치 안정은 불확실
10	고통분담을 둘러싼 갈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위기 대응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 - 복지혜택 축소와 부유층 증세에 따른 소득계층 간 갈등이 확산 - 재정지원국과 위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도 격화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2013.1) 재정리

가. 스마트 혁명과 가상재화

- 스마트폰과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결합으로 시작된 스마트혁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음
 - 스마트 혁명은 ICT 컨버전스를 통한 스마트화가 전 산업 분야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
 - 스마트혁명의 5대요소는 ①유무선 브로드밴드, ②스마트 단말, ③클라우드 컴퓨팅, ④플랫폼, ⑤OS/보안
-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가상재화 (Virtual Goods market)이 창출되고 있음
 - 가상재화 시장은 無국경, 無관세, 無수송비의 글로벌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비즈니스 기회와 거대한 성장 기회를 제공

스마트혁명과 가상재화의 관계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나. 가상재화 시대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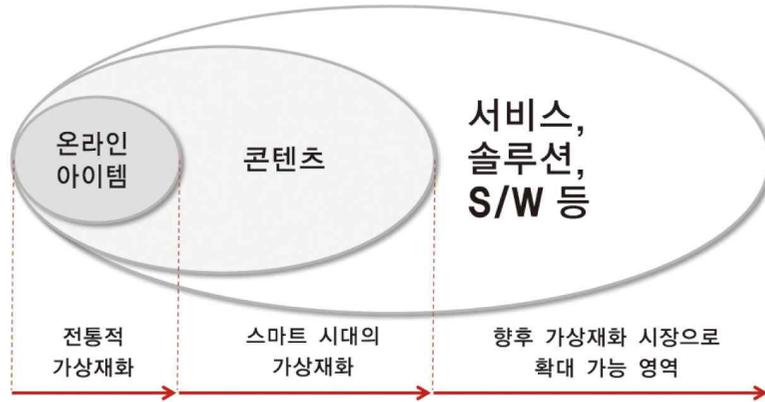
- 스마트 혁명 시대에 맞게 재정의된 가상재화는 ①무형의 디지털로 존재하고, ②네트워크로 유통되며, ③스마트 단말에서 소비되는 재화를 의미
 - 초기의 가상재화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나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협소한 개념이었지만 스마트 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의미가 앱스토어에서 거래되는 음원, e-Book,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
 - 향후 스마트 혁명의 파급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가상재화 시장의 범위도 전통적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가상재화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특징	
Product 속성	Digitalized, Intangi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된 무형의 재화 - 적은 비용으로 빠른 제작, 무한 확장 가능 - Physical Goods 대비, 누구나 사업 기회 포착 가능 - 1인, 소규모 기업에서 생산-제작 가능 (창조적 1인 기업, SOHO 등 확대 전망)
	Smart De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art Device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쉬운 사용
Business 속성	Global Mark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시장으로 확장 장벽이 존재하지 않음 (3無, 국경 관세, 수송비)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Upload/Download 가능 - 온라인 상에 보관/소유가 가능 - Cloud 기반의 유무선 네트워크 발전과 연계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가상재화의 현재와 미래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다. 가상재화 시장 전망

- 현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콘텐츠 영역만을 기준으로 전망한 글로벌 가상재화 시장의 규모는 2011년 \$308억에서 2016년 약 \$1,912억으로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2011~2016년 세계 가상재화 시장 규모(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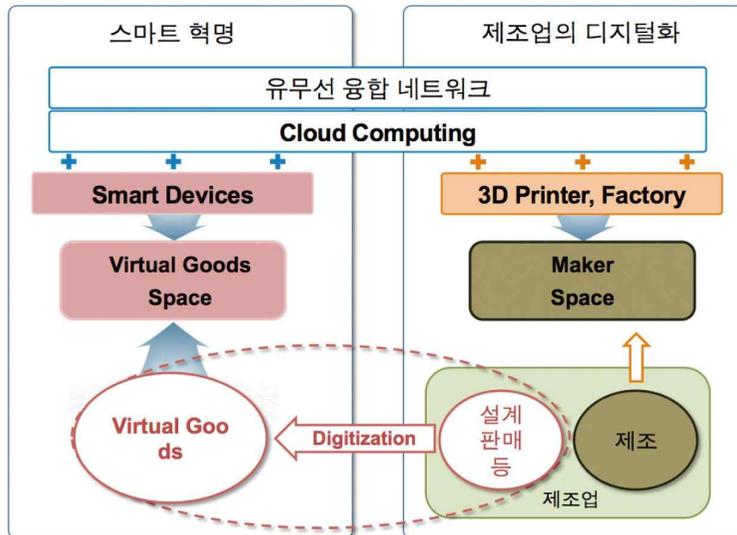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게임	5,114	8,791	14,721	20,294	24,928	30,620
비디오	5,937	7,670	9,477	11,202	12,922	15,073
방송	2,628	4,179	6,009	8,098	10,372	13,325
음악	4,946	7,274	8,676	10,766	12,421	14,330
출판	5,717	8,607	12,334	17,699	23,825	32,333
지식정보	1,449	1,867	2,477	3,320	4,416	5,980
기타	1,558	1,741	1,930	2,108	2,282	2,487
앱	3,480	16,527	26,575	40,163	54,500	78,083
계	30,829	56,657	82,199	113,650	145,736	192,119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PWC(2012), IDC(2012), NIPA(2011), Forrester research(2011), FCC(2011), OECD, ICV2 등 KT경제경영연구소 재분석

라. 가상재화와 제 3차 산업혁명

-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가상재화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
 - 글로벌 네트워크에 3D 프린터와 공장들이 연계된 'Maker Space'가 출현하자 제조업 중 설계, 판매, 관리처럼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작 부분과 분리된 채 가상재화가 되어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남
 - 가상재화 시장이 디지털화된 제조업 부분과 각종 서비스, SW, 솔루션 등까지 확장될 경우 그 규모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임
 - 약 \$2조 규모인 글로벌 제조업 시장의 10%만 가상재화 시장으로 편입되어도 \$2,000억의 가상재화 시장이 추가로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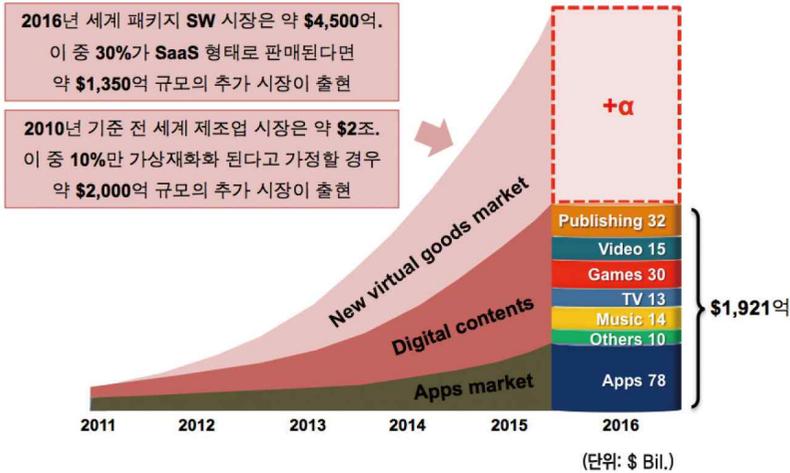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가상재화 시장 확대 과정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 패키지SW, IT솔루션,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확장될 가상재화 시장은 예측이 어려울 만큼 커질 것임

패키지SW, IT솔루션, 제조업 디지털화로 확대될 가상재화 시장 전망



자료: KT경제경영연구소

마. 가상재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 가상재화가 제조업과 서비스 및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파급력은 <제3차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클 것으로 기대됨
 - 가상재화는 글로벌 단일 시장을 기반으로 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일인 창조기업과 소자본 창업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빈곤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
 - 탄소배출 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녹색 성장에도 기여

바. 가상재화 시대를 위한 제언

- 가상재화가 제공하는 무한 성장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가치의 재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사업자가 네트워크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유한한 네트워크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비즈니스화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적극적 개입에서 소극적 개입(Negative)으로 전환되어야 함
 - 급속히 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부가 지정한 부분만 사업화 할 수 있다면 수많은 사업 기회를 글로벌 기업들에게 빼앗길 수 있음

- 스마트 혁명 시대에 걸맞은 준비된 인재의 풀을 풍부히 해야 함
 - 학제간 통합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수 있는 인재가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

VI. 월간 SW 이슈 분석



가. 개요

-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의 부상은 모바일 업계의 관심사였으나 아직 실현된 성과는 약한 편임
 - 그러나 NFC 기술은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며, 여전히 앞으로 몇 년 동안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NFC가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어 NFC가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

나. NFC의 용도

- 기본적으로 NFC는 기기들이 서로 또는 NFC “태그”와 통신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 집합
 - NFC 태그는 NFC 지원 기기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레이블로 NFC 표준의 목표는 최소한의 사용자 조작만으로 기기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구축하는 것
- 가상화 우선 전략
 - 가장 흔히 이야기되는 NFC의 용도 중 하나는 모바일 결제
 - 구글 지갑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해두고, 삼성 갤럭시 S3와 같은 인기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내장된 NFC 칩을 사용하여 상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함
 - NFC 응용 분야에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있지만, 향후 몇 년 내에 가장 일반적인 NFC 기술 사용처가 될 가능성이 높음
 - 가트너는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금액 기준 6,170억 달러, 사용자 기준 4억 4,800만 명에 이르는 2016년부터 NFC 기술이 탄력을 얻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결제 외에도 근거리 무선통신의 응용 분야는 많음
 - 빠른 파일 공유도 그 중 하나로 두 명의 사용자가 서로 스마트폰을 접촉시켜 파일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삼성 갤럭시 S3 광고를 통해 유명해짐
 - 이 기능은 출장이 잦고 동료 또는 고객과 신속하게 데이터를 교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
 - 그러나 상대방이 바로 옆에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상은 전통적인 이메일이나 협업용 앱이 여전히 우위에 있음

- NFC는 풍부한 인터랙티브 마케팅 기회를 제공
 - NFC 태그를 공공 장소의 광고나 기타 마케팅 자료에 배치하면 사용자가 이를 스캔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음
 - 런던 박물관은 관람객이 전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이벤트 입장권도 구입할 수 있는 NFC 기반의 모바일 앱을 제공

- 재고 관리도 NFC에 의해 변화되고 있음
 - 불과 몇 센티미터 거리까지만 가능한 NFC의 제약으로 인해 대량 재고 관리 분야에서는 RFID가 더 적합하지만, NFC는 재고에 대한 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아메리칸 써멀 인스트루먼트(American Thermal Instruments) 회사는 사용자가 화물 내의 상품(예: 약) 온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
 - 화물 내에서 하나의 물건 온도만 스캔하면 해당 화물에 포함된 모든 물건의 온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배송 중 대량 상품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

나. NFC의 장점

- 본질적으로 NFC는 1980년대부터 사용된 RFID에서 그 대상을 더욱 좁힌 기술로 NFC의 장점은 보안을 들 수 있음
 - NFC 표준은 암호화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이를 통해 RFID 표준과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암호화를 지원
 - 블루투스 역시 표면적으로는 NFC보다 더 실용성이 높은 기술로 보여, 블루투스 기기는 최대 9m 정도의 거리까지 통신이 가능하고 블루투스는 AES 암호화도 지원
 - 그러나 다양한 사례에서 NFC가 여전히 블루투스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NearFieldCommunication.org에 따르면 NFC는 몇 센티미터 거리로 제한되므로 간섭 가능성이 낮으나, 블루투스의 경우 여러 블루투스 지원 기기가 동일한 영역 내에 있을 경우 데이터 전송 중 간섭이 자주 발생함
 - 블루투스는 기기를 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 빠른 파일 전송에서는 NFC가 더 유리함
 - NFC는 블루투스보다 훨씬 적은 전력만 소비하여, 적은 전력 소비는 배터리에 민감한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갈수록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기술을 조합해서 NFC로 두 기기 사이에 신속하게 연결을 구성한 다음 기기가 NFC의 통신 범위를 벗어나면 이 연결을 블루투스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나. NFC의 장점

- 사용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이 단점
 - NFC 기반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마케팅 캠페인을 추진하려는 기업에게는 이 점이 수익 관점에서 위험 요소로 작용

- NFC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 비용을 투자한 후 이를 회수할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이 기술을 사용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음
- 보안 문제도 있어 암호화를 사용하더라도 모든 금융 정보를 분실과 파손에 취약한 스마트폰에 저장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나 기업에게 모두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음
- 모바일 결제 기술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려면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더 폭넓은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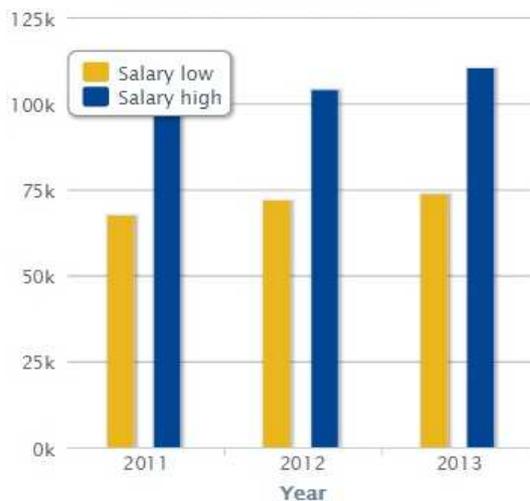
다. 현재 NFC의 개발 단계

- NFC는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음
 - 구글, 인텔, 마스터카드를 포함한 170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NFC 포럼은 제조 공정에서 NFC 기술을 쉽게 통합하고 일상에서 더 편리하게 NFC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을 계속 개발 중
 - NFC와 무선 충전 기술의 통합은 제조 공정에서 두 기술을 구현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여줄 것으로 예상
 - 최근 NFC 포럼은 NFC를 더 다양한 소비자 시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관계도 발표
 - 글로벌 인증 포럼(Global Certification Forum)은 NFC 포럼과 함께 실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소비자 요구에 충실하게 NFC 표준을 다듬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가. 개요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자들과 사용자 경험(UX) 전문가들이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음
 - 미국에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UX 디자이너의 수요는 25%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의 증가치는 70%에 이를 정도로 늘어남(QConnects)
 - 연봉 또한 증가 추세로, UX 디자이너의 초봉은 7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정도이고, 최고수준의 인재들은 15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음
 - 2011년부터 연례 연봉 조사에서 UX 디자이너들의 항목을 따로 추적한 결과, 이들의 연봉은 2012년에는 6.2% 올랐고, 2013년에는 거기에서 또다시 4.8%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 (크리에이티브 그룹(The Creative Group))

UX 인력의 연봉 상승추이



자료: The Creative Group (2012)

나. 애플 이후로 사용자들의 기대치 상승

- 디자인 측면으로 볼 때 사용자 인터페이스(UI)는 사용자가 보는 것이고, 사용자 경험(UX)은 애플리케이션이 행동하는 방식
 - 디자이너라면 UI와 UX 모두 잘 알고 있어야 함
 - 디자인이 보여지는 면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와이어프레임”과 사용자의 요청이 시스템 백엔드 어디로 들어가는지 까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애플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디자인과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교차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이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아이폰 수준으로 사용하기 쉬울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됨
 -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달려있어, 음식점 체인이든, 자동차 제조업체든, 훌륭한 디자인을 선보인 회사들은 더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게 됨

- 모바일 컴퓨팅이 폭발하면서, 기업의 클라이언트 기반이 더욱 넓어지게 되고, 또 소비자 제품과 같은 경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
 -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들에 따른 특유의 맞춤 경험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다. 하이테크, 하이터치

- 디자인이 모든 이들의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UX 전문가들은 갑자기 수요 초과 공급 부족 상황을 맞게 됨
 - UX 전문 인력을 찾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디자인, 프로그래밍, 인간 행동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역할이기 때문
 - 좌뇌와 우뇌를 모두 활용할 줄 아는 융합적 인재는 하이테크, 하이터치형 인재가 이상적

- 대학에서 영어와 음악을 복수 전공했고, 미시간 대학교 정보화 대학원 (School of Information)에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대표적 사례

□ UX 인력들의 직업 만족도

- 앱의 인터페이스 요건, 사용자 경험의 맥락, 백엔드 조작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난해하지만, 금전적 보상과 추가 혜택은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
- 연봉은 7만달러에서 11만달러가 평균일 정도이고, 인터넷 열풍 시절 때와 같은 스톡 옵션, 계약 보너스, 자유로운 근무시간 등의 혜택도 추가로 누리고 있음
 - 금전적 혜택 이외에도 일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고, 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는 점도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다. 기업들의 자체 UX팀 구성 전략

- 사업의 운명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에 크게 좌우되는 현재, 대학과 직업 학교들이 디자인과 코딩 감각을 동시에 갖춘 졸업생들을 배출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은 앱 개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러한 회사들은 디자이너가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래머와 적절한 대화를 나누어서 디자인 결정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등 자체 UX 팀을 구성해서 대응
 - 디자인 업계의 사람들이 웹과 디지털 능력과의 소통을 배울 수 있게 가르쳐서, 그들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도 방법
 - 역으로 기술쪽 사람들도 유용성, 외형, 이용 시나리오 등을 이해하기 위해 프론트엔드 팀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있음
 -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IT를 비롯한 각종 기술을 의류기술로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필요